

10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2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대폭락 22주년에 `1만선 회복`..다우 0.9%↑</p>	<p>뉴욕증시가 19일(현지시간) 1987년 블랙먼데이 22주년을 맞아 기업실적 호재를 등에 업고 강세로 마감했음. 다우 지수는 하루만에 1만선을 회복했음. 다우 지수는 96.28포인트(0.96%) 상승한 1만92.19를, 나스닥 지수는 19.52포인트(0.91%) 오른 2176.32를, S&P 500 지수는 10.23포인트(0.94%) 상승한 1097.91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정확히 22년전 대폭락을 경험했음. 당시 다우 지수는 하루동안 무려 22.6%나 떨어져, 월가에서는 이날을 `블랙먼데이`로 부르고 있음. 하지만 뉴욕증시는 `블랙먼데이` 22주년을 맞이해, 다우 지수는 하루만에 1만선을 회복하며 연중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했음. 미디어그룹인 개릿과 부품업체인 이튼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다우종목인 캐터필라에 대한 실적 전망치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는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음. 여기에다 미국 달러화가 반등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8일 연속 급등, 에너지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반등에 일조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블루칩종목중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25개, 주가가 내린 종목은 5개로 하락종목이 크게 우세했음.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보인 반면 미국채 가격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음.</p>
<p>실적발표 앞둔 캐터필라, 투자 의견 상향 붓물</p>	<p>다우 지수 구성종목이자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가 6%나 급등하며 다우 지수 상승은 물론이고 투자심리를 크게 끌어올렸음. 이번주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 의견 코멘트가 쏟아졌기 때문임. BoA/메릴린치는 기계류의 회복세가 내년엔 더욱 빨라 질 것라며 캐터필라의 2010년과 2011년 이익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목표주가를 52달러에서 65달러로 대폭 올렸음. 캐터필라의 이날 증가는 57.85달러. RBC 캐피탈도 이날 캐터필라에 대해 `비중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분석을 시작했다. RBC는 캐터필라가 글로벌 경제 성장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음.</p>
<p>美 10월 주택채감 경기 지수 `예상밖 하락`</p>	<p>전미주택건설협회(NAHB)가 발표한 10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HNI)가 18을 기록했음. 이는 전월 19는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인 20을 하회하는 수치임. 지수는 조사 응답자 100명중 18명이 향후 주택경기를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택건설 업계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높지 않음을 보여줌. 10월 지수가 감소한 것을 세제지원 중단이 큰 영향을 미쳤음. 미 정부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8000달러의 세금공제를 지원하고 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강세 지속.. 한때 79.05弗 `연중 최고`	지난주 9%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던 국제유가가 19일(한국시간)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41분 현재 배럴당 2센트 오른 78.55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한때는 배럴당 79.05달러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음.
버냉키 "아시아가 세계 경제 회복 주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아시아가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치켜세웠음. 버냉키는 그러나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 문제를 지적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음. 버냉키는 우선 지난 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의 경제는 크게 강건해졌다고 평가했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채 이번 경제위기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버냉키는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음.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지양하는 대신 아시아 각국이 내수 소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임. 버냉키는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교역량이 정점대비 20%나 감소하면서, 세계경제 불균형도 상당히 시정됐지만,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미국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아시아 국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늘려달라는 것이 이날 버냉키 연설의 요점임.
김준기 회장의 결단, 뭉 노렸나	산업은행과의 동부그룹간 동부메탈 매각협상에 김준기 동부 회장의 `사재출연`이라는 해법이 등장했음. 김 회장은 3500억원의 사재를 들여 동부하이텍이 보유(100%)한 동부메탈 지분 중 50%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음. 이같은 사재출연 결단은 산은과의 동부메탈 매각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동부그룹 전체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이 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임. 동부그룹은 "동부메탈이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만큼 헐값 매각을 곤란하다"며 "헐값에 넘길 바에는 차라리 동부메탈이 번 돈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는 등 대(對) 산은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사재출연 결정에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김 회장의 고집과 소신도 한몫 한 것으로 보임. 김 회장은 아남반도체를 인수해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 이후로 반도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피력해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